<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한 · 중 화학산업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화학산업계가 본격적인 협력의 장을 열게 됐다.
화학경제연구원과 중국 화학공업부 국제합작사(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는 지난 2월 23일 10시 중국 북경의 LANDMARK호텔에서 「한 · 중 화학산업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공식 서명, 한 · 중 협력의 새 장을 여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합의서는 한국과 중국의 화학산업계가 합작투자, 기술교류, 수출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과 교류증진을 촉진시키는 공식적인 창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한국과 중국의 화학산업계가 교류와 교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제도적 장치안에서 미래지향적 방향을 감지하면서 교류와 교역을 증진시켜 왔다기 보다는 현상의 이익만을 쫓는 단기적이고 비우호적이랄 수 있는 선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류와 교역에 따른 갖가지 마찰이 일어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반갑지 않은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마찰은 한 · 중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가지 조건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지나칠 일은 아닐 것이다.
첫째, 중국은 우리와 장래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이라는 사실이다. 고조선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한국은 적대적인 영토확장을 위해 상대를 침략하고 방어하는 전쟁상대국과, 주변의 공동의 적을 두고 협력해 주권과 국토를 방어하는 우방의 위치를 번갈아가며 견지해 왔다. 근세사에서 우리의 국력이 쇠약해져 보호받는 위치로 전락한 감이 있으나 오늘에 와서는 또다시 대등한 위치에 올라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2억이 넘는 인구와 광활한 국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이며 현재는 북한과 남한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펼치는 위치에 있고, 우리는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얼마전까지의 적대관계는 이미 해소된 상태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12억이라는 세계 전체인구의 1/4을 보유한 국가로 경제발전에 따라서는 화학제품 등 산업생산의 최대 수요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1인당 GNP가 1000달러에도 못미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의 경제성장률 10%안팎을 계속 유지한다면 2000년대초에는 세계 최대의 GNP를 자랑하면서 생산제품의 최대 소비처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은 44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남북한을 합쳐도 7000만명에 불과한, 그래서 생산설비 건설시에는 항상 수출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화된 사업 추진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만약, 중국인구 12억의 10%에 해당하는 1억2000만명만 우리의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2억에 달하는 수요선이 보장되고 예전의 고민은 그리 심각한 것이 되지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 화학산업계는 크게 보아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3각축을 형성하고 있다. 화학산업만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일본은 항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만의 능력으로 일본을 따라잡고 앞서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다. 생활방식이나 기술이나 근면성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협력한다면 일본이 결코 넘지못할 벽은 아닐 것이며, 우리는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의 응용기술과 경험, 중국의 기초기술과 수요,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한중 양국은 상호발전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학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해 「한 · 중화학산업 협력」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양국 화학산업계가 공동발전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함에 있어서 교량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교류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

이러한 발전적 노력이 펼쳐질 때 양국 화학산업계는 보다 더 우호적인 관계 설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화학산업은 상호보완적 관계가 이상적이다.

<화학저널 1995/3/13>